

고리원전 2호기, 발전 재개 후 정상운전 출력 도달

등록 2021.05.02 10:35:51



[부산=뉴스시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부산=뉴스시스] 하경민 기자 = 최근 발전이 정지된 고리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65만kW급)가 점검을 완료한 뒤 정상적으로 발전을 재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고리2호기가 지난 1일 오후 11시 8분께 정상운전 출력(100%)에 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고리2호기는 지난달 23일 발전이 중단됐고, 고장 원인 점검 등을 거친 이후 같은달 30일 발전을 재개했다.

고리2호기의 원자로 정지 원인을 크레인 작업 관리 미흡에 따른 송전선로 보호계전기 작동으로 확인됐다고 고리원자력본부는 설명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송전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금지구역 설정, 정비작업 관리·위험성재평가 교육 수행, 비상주 협력사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

더불어 향후 절차서 개정, 크레인 포함 특수차량 출입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고리원자력본부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